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 미 경[†]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n Career Decision Level in Female College Students

Mikyung Kim[†]

School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items for a questionnaire were developed. For the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292 students from women's university in Seoul.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s 23.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structur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d three factors: 'fashion & hair,' 'skin & plastic surgery,' and 'body shap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actor structure were proved. Second,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ub-factors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only with body management factor. Third,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have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For higher grade students, fashion & hair factor and body shape factor had positive effects on career decision level. For lower grade students, body shape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while skin & plastic surgery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Therefore, to increase career decision level, managing appearance through keeping fit body shape is crucial.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s one elevates to a higher grade,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and keeping interest toward fashion is important.

Keywords :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관리행동), career decision level (진로결정수준)

[†]Corresponding author: Mikyung Kim, Tel. +82-2-2077-7266
E-mail: kimmk@sookmyung.ac.kr

1. 서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직업과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개발 전략은 중요한 교육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교육부와 노동부 등 국가 산하기관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담당하는 대학 부속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진로결정은 사회진출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관련 변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한 진로개발 정책 수립과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진로결정과 취업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여대생은 남학생 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낮으며 취업준비가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Super, 1980; Lee, 1994).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대생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진로결정과 취업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략적 방법의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할 때 외모관리를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외모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취직이나 승진 등과 같은 성취동기를 추구하는 상황에 있어 개인들은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외모관리를 하게 된다. Hoscodo, Stone-Romero and Coats(2003)는 외모와 직업과의 실험적 연구를 통한 메타분석에서 신체적 매력은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인사 관리자들은 고용 시 지원자의 신체적 매력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Roberts(2005)는 직장인이 외모를 통해 개인적 정

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전략 조절과 관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외모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와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외모관리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기개발과 진로개발 관련 연구자들에게 외적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여대생의 행동적 특성을 적용한 최적화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지가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주얼 시대에 있어 외모관리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진로를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동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외모관리 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심미적·행동적 자기관리 측면에서의 효과성 변인을 도출하여 진로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외모관련행동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연구와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외모관리가 자기관리와 진로개발에 필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외모관리행동의 요소와 진로개발수준의 척도를 도출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척도문항을 바탕으로 외모관리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진로결정수준 변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들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 요인의 영향력의 범위와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리행동

외모란 자기를 들어내는 실체로서 얼굴, 몸매 등의 신체적 속성 뿐 아니라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 등 다양한 외적 요소를 포함하여 착용자의 개인적·사회적·상황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다(Kaiser, 1998).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이란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외적 요소들을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심리적·행위적 개념으로 헤어스타일, 피부, 체형, 의복 등에 대한 관리행동을 지칭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투사하는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Myerson(as cited in S. Kim & An, 2012)은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역할을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하였으며, Kaiser(1998)는 외모관리행동을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피부미용, 성형, 체중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행동으로 이상적인 신체적 자아와 현실적인 신체적 자아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외모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외모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Stice et al.(as cited in E. Park & Chung, 2012)은 미디어라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형성하고 날씬한 것이 좋다는 사회문화적 가정들을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J. Park(2006)은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있어 체중과 체형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체형관리를 외모관리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Song(2009)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비교하여 신체적 결점을 인식하게 되면 화장, 헤어스타일, 미용성형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상적 외모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적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체형, 화장, 헤어스타일, 미용성형) 간의 상호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Cho and Choi(2007)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외모향상추구행동은 화장,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 순으로 행해진다고 하였으며, E. Park and Chung(2012)은 얼굴관리(피부관리 및 화장), 의복선택, 체형관리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외모관리행동은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자기개발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기되면서 외모관리행동과 외생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외모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경제학자들(Engemann & Owyang, 2005; Gladwell, 2005; Hamermesh & Biddle, 1994; Mobius & Rosenblat, 2006)의 주장에 따르면 외모와 취업, 경제력 및 생존은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과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모가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요소라고 밝혔다. Han(2015)은 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Im(2007)은 외모가 채용이나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를 매개변수로 한 순차적 연결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외모관리는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들 뿐 아니라 취업과 진로를 위해 자기개발을 학생들에게도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필수적 관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외모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모관리의 영향은 부분적 요소에 의해 차이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Mikyung Kim(2014)은 외적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가 외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자기관리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자기효능감 향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제시함으로써 외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H. Lee(2008)는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행동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경우 체형 및 의복관리행동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부 및 미용관리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외모관리행동은 체형과 의복관리행동이며 피부와 미용관리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외에도 자기개발과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외모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외모의 영향은 일시적일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Harrisom, Price, & Bell, 1998; Watkins & Johnston, 2000; Nicklin & Roch, 2008).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개발과 진로개발 등 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모관리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이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 진로미결정은 진로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진로의사 결정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성격특성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S. Lee, 2007). 즉 진로결정수준이란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인지적 행동에 대한 과정상의 연속적 개념으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확신에 대한 수준이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시기에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Harren(1979)은 진로결정검사를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연구가 축적되면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Ginzberg and Super(as cited in H. Park, 2012)은 진로결정수준이 대학생 시기에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Mitchell and Krumboltz(as cited in H. Park, 2012)는 진로결정수준은 결정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Super(as cited in Mi-Ju Kim, 2010)는 대학생 시기는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과업과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로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의 측정 도구는 1970년대부터 교육학과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Holland and Holland(1977)가 진로선택 미결정 척도 VDMD(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y Scale)를 개발한 이후 Osipow et al(1980)의 CDS(Carrer Decision Scale), Jones and Chenery(1980)의 진로결정 프로파일 CDP(Career Decision Profile) 등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로결정수준 도구는 Osipow et al.(1980)이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진로결정 검사 도구 CDS(Carrer Decision Scale)이다. 이 도구는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을 측정하는 확신성 척도 2문항과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 확인 및 진로선택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미결정 척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H. Ko(1992)가 Osipow et al.(1980)이 개발한 CDS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의사결정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 학년, 전공계열에 따라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Oh and B. Lee(2005)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애착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자대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흥미, 목표 자발적 진로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 Ko(2011)는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를 낮추고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M. Ko(2011)은 진로에 대한 시급성과 심각성만으로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진로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진로결정수준은 내외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구조적 관계에 의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Osipow et al.(1980)이 개발한 CDS를 변안한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를 통해 진로결정수준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도를 검증한다.

둘째, 외모관리행동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간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넷째, 학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외적 이미지 관리 행동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 ~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 처리된 설문지를 제외한 292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3버전이며, 통계분석은 척도의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분석과 요인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외모관리행동의 구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외모관리행동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년의 차이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1학년 95명(32.5%), 2학년 41명(14%), 3학년 82명(28.1%), 4학년 74명(25.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은 어문계열 61명(20.9%), 사회계열 36명(12.3%), 인문계열 34명(11.7%), 경상계열 40명(13.7%), 자연계열 52명(17.8%), 예체능계열 69명(23.7%)으로 분포되었다.

3. 측정도구 및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도출된 외모관리행동 문항과 진로결정수준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는 Osipow et al.(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DS: Carrer Decision Scale) 도구를 H. Ko(1992)가 우리문화에 맞게 변안하여 18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18개의 문항을 진로결정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총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 Ko(201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진로확신 2 문항(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과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전공 선택에 대한 편안함과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 진로미결정 16 문항(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안 부족/ 직업에 대한 비호감/ 전공에 대한 불확신/ 진로 수행의 어려움/ 적성 및 흥미와 진로연결과의 어려움 2문항/ 직업과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 2 문항/진로 결정 시의 도움 필요 2문항/ 진로와 직업 선택의 어려움 6문항) 등 총 18개의 문항이 진로결정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총 문항의 신뢰도는 .895로 안정된 신뢰도 값을 보여주었다.

외모관리행동 문항은 H. Lee(2008)가 이미지 컨

설립 전문가와 교육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토 받아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용한 17개의 문항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안정한 구조를 나타낸 문항을 제외한 13개의 문항을 측정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문항별 신뢰도 값은 패션과 헤어 요인이 .999, 피부와 성형 요인이 .994, 체형 요인이 .992로 높은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전체 설문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Table 1과 같다.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관리행동의 요인구조

외모관리행동 측정문항에 대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통한 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3개의 문항을 투입한 결과 아이겐값이 1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구조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고유값 4.133 분산설명력 31.792%를 나타냈으며, 패션과 헤어에 관련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패션과 헤어’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피부와 성형 관련 3문항으로 고유값 2.123과 분산설명력 16.331%를 나타냈었다. 요인명은 ‘피부와 성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체형 관리 2문항으로 고유값 1.614와 분산설명력 12.419%를 나타냈

다. 요인명은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60.542%로 요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H. Lee(2008)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을 2개의 하위 요인(체형 및 의복관리 요인, 피부 및 미용관리 요인)으로 제시한 것보다는 세분화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E. Park and Chung(2012)이 제시한 3개의 하위요인(얼굴관리, 체중/체형관리, 의복선택행동)과는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었다.

2. 외모관리행동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변인간의 상관성

외모관리행동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변인들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변인의 평균값은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는 패션과 헤어 요인이 3.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와 성형 요인이 3.165, 체형 요인이 2.993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3.278로 보통수준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패션과 헤어 관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하는 반면, 체형관리에 있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 등의 관리행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 and Choi(2007)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Table 1. Measures and Reliability Coefficients

Components		N of item	Cronbach' α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shion & Hair	8	.999	.998
	Skin & Plastic surgery	3	.994	
	Body Shape	2	.992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onfidence	2	.895	
	Career indecision(reverse)	16		
Total		31		

추구하는 외모향상추구행동으로 제시한 화장, 체중 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 순의 결과와 E. Park and Chung(2012)이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외모관리행동으로 제시한 피부관리 및 화장, 의복선택, 체형관리 순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외모관리행동 요인의 경우 하위요인 간에 $p < .01$ 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요인별 상관계수는 패션과 헤어 요인이 피부와 성형 요인과의 .337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체형관리 요인과의 .248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피부와 성형 요인의 경우 체형관리 요인과의 .218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진로결정수준 변인의 경우 체형관리 요인에서만 상관계수 .202로 $p < .01$ 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외모관리행동의 경우 하위요인 간에 정적 상관성을 나타냄으로써 패션과 헤어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피부관리와 성형 및 체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상호 보완적인 자기관리를 수행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ong(2009)이 외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체형, 화장, 헤어스타일, 미용성형 등의 구성요소들 간에는 상호 연관된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외모관리행동과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체형관리만이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Mikyung Kim(2014)을 비롯한 선행 연구가들이 자기개발 변인과 외모관리 요인 간에는 일시적이며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Factor Analysis f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	component		
		1	2	3
Fashion & Hair	I know how to wear the appropriate clothes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825		
	I am capable of choosing the clothes that looks well on me.	.818		
	I know how to balance the colors of my clothes.	.789		
	I am more fashionable compared to others.	.788		
	I am capable of wearing clothes to make my figure look good.	.764		
	I wear clothes that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others.	.706		
	I use hair products in order to take care of my hairstyle.	.526		
Skin & Plastic surgery	I have an experience of dyeing, bleaching or getting a perm in order to manage my hairstyle.	.430		
	I have an experience of visiting a dermatologist or receiving skin care in order to take care of my skin.		.640	
	I have an experience of receiving skin care or am planning on doing so in the future.		.580	
Body Shape	I have received plastic surgery or am planning on receiving it in order to manage my appearance.		.459	
	I am controlling my diet in order to stay fit.			.722
	I usually exercise in order to stay fit.			.687
Eigenvalue		4.133	2.123	1.614
% of variance		31.792	16.331	12.419
Cronbach's alpha		.999	.994	.992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Factor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Mean	Std. Deviation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1. Fashion & Hair	3.688	.646	1.00			
2. Skin & Plastic surgery	3.165	1.017	.337**	1.00		
3. Body Shape	2.993	1.028	.248**	.218**	1.00	
4. Career Decision Level	3.278	.673	.085	-.076	.202**	1.0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4.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areer Decision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Tolerance	R Square	F
		B	Std. Error	Beta					
Career Decision Level	constant	2.856	.234		12.192	.000		.061	6.263 p=.000
	Fashion & Hair	.086	.064	.083	1.335	.183	.854		
	Skin&Plastic surgery	-.099	.041	-.150	-2.442	.015	.867		
	Body Shape	.140	.039	.214	3.583	.000	.918		

3.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공차한계값이 0.10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F 값은 6.263으로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피부와 성형 요인은 $p < .05$ 에서 체형 요인은 $p < .001$ 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패션과 헤어 요인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 요인의 경우 t값이 3.583($p = .000$)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회귀계수 .140으로 체형 관리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

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와 성형 요인의 경우 t값이 -2.442($p = .015$)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귀계수 -.099로 피부와 성형에 대한 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J. Park(2006)이 제시한 결과 즉, 여대생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형관리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4. 학년별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년별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전체학년을 고학년(3, 4학년)과

저학년(1,2학년)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고학년과 저학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Table 5와 같다.

고학년의 표본 수는 156명으로 패션과 헤어 관리 행동 요인의 평균값이 3.760으로 가장 높으며 진로 결정수준, 피부와 성형 관리행동, 체형 관리행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학년의 표본 수는 136명으로 패션과 헤어 관리행동 요인의 평균값이 3.606으로 가장 높으며 진로결정수준, 피부와 성형 관리행동, 체중 관리행동 순으로 고학년과 같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즉, 학년을 불문하고 패션과 헤어 관리행동은 모든 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패션과 헤어 관리가 가장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형 관리행동의 경우 고학년은 .312인 반면 저학년은 2.844로 저학년의 체형에 대한 관리행동이 고학년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높아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외모관리에 적극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1) 고학년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더미변수에 따른 고학년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공차한계값이 0.10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F 값은 4.412

로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패션과 헤어 요인 및 체형 요인이 $p < .05$ 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피부와 성형 요인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고학년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체형 관리행동 뿐 아니라 패션과 헤어 관리행동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해 준 사례이다. 패션과 헤어 요인 및 체형 요인의 경우 t값이 2.122($p = .035$)와 2.250($p = .026$)으로 두 요인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패션과 헤어 요인이 .194, 체형 요인이 .124로 패션과 헤어 및 체형에 대한 관리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학년의 경우 취업과 진로를 위한 자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진로를 위해 외적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패션과 헤어 및 체형에 높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저학년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더미변수에 따른 저학년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공차한계값이 0.10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F 값은

Table 5. Mean of the Variable according to Grade

		Higher Grades(N=156)		Lower Grades(N=136)	
		Mean	Std. Deviation	Mean	Std. Deviation
Independent variable	Fashion & Hair	3.760	.689	3.606	.5841
	Skin & Plastic surgery	3.216	1.049	3.106	.980
	Body Shape	3.122	1.062	2.844	.9706
Dependent variable	Career-Decision Level	3.333	.699	3.214	.639

Table 6.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areer Decision Level (Higher Grad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Tolerance	R Square	F
		B	Std. Error	Beta					
Career Decision Level	constant	2.545	.309		8.237	.000		.080	4.412 p=.005
	Fashion & Hair	.194	.091	.191	2.122	.035	.746		
	Skin&Plastic surgery	-.102	.058	-.153	-1.753	.082	.795		
	Body Shape	.124	.055	.188	2.250	.026	.866		

Table 7.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areer Decision Level (Lower Grad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Tolerance	R Square	F
		B	Std. Error	Beta					
Career Decision Level	constant	3.515	.376		9.358	.000		.067	3.117 p=.028
	Fashion & Hair	-.083	.094	-.076	-.884	.378	.967		
	Skin&Plastic surgery	-.116	.057	-.178	-2.054	.042	.947		
	Body Shape	.126	.056	.192	2.248	.026	.974		

3.117로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피부와 성형 요인 및 체형 요인이 $p < .05$ 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패션과 헤어 요인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 요인의 경우 t 값이 2.248($p = .026$)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피부와 성형 요인의 경우 t 값이 -2.054($p = .042$)로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체형의 회귀계수는 .140으로 체형 관리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와 성형의 회귀계수는 -.099로 피부와 성형에 대한 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과 달리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외적이미지를 관리하

는 이유가 진로와는 연관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부와 성형에 대한 행동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결정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를 통해 변인을 도출하고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의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자(Cho & Choi, 2007, E. Park & Chung 2012; H. Lee, 2008; J. Park, 2006; Kaiser, 1998)들이 외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화장, 피부, 미용, 성형, 의복, 체형

등의 요소로 하위요인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패션과 헤어’, ‘피부와 성형’, ‘체형’의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요인구조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둘째, 외모관리행동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 간에는 $p < .01$ 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진로결정수준과는 체형관리 요인에서만 $p < .01$ 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모관리행동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외모관리행동 중 체형 요인만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피부와 성형 요인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Han(2015)이 외모관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요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결과로 Im(2007)이 외모가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개변수로 한 순차적 연결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처럼 외모관리행동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생변수와 의 관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전체학년을 고학년(3, 4학년)과 저학년(1, 2학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고학년의 경우는 패션과 헤어 요인과 체형 요인에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저학년의 경우는 전체학년의 경우와 같이 체형 요인에서는 정적 영향을, 피부와 성형 요인에서는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년별 외모관리행동의 평균값에 있어서는 고학년과 저학년 모두 패션과 헤어관리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피부와 성형, 체형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을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저학년을 체형관리에 대한 평균값이 2.844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경우 외모관리에 있어 패션과 헤어 요인은 자기관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체형관리는 쉽게 실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고학년이 될수록 H. Lee(2008)가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리행동 변인은 체형과 의복관리행동이며 피부와 미용관리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처럼 패션과 헤어관리 요인은 체형관리 요인과 함께 고학년의 여대생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체형관리와 올바른 외모관리가 필요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체형관리와 함께 패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지나친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은 진로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필요한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 등의 진로준비행동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취업과 진로를 위한 효과적인 외모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진로탐색과 취업준비를 하는데 압박감을 받은 고학년의 여대생들에게 있어 진로와 관련된 외적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형과 패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체형은 의복의 실루엣을 결정하는 베이스로서 이 두 요인의 유기적 관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진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체형과 패션에 대한 유기적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감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로개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미지 컨설팅 등의 외모관리 교육의 경우 외모를 취업에 직면해서 순간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벤트성 교육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건강한 체형관리와 함께 외형을 자신의 진로 분야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 교육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정규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생적 변화를 촉진하는 외모관리 요인에 대한 교육은 진취성과 적극적 사고 등의 인지적 자극을 촉진시킴으로써 셀프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의 시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의 체감으로 불안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여대생에게 있어 자신

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자기변화를 창출하는 실행적 진로개발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학문적 측면에서의 외모관리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는 외모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합적 사고와 외모가 갖는 표면적 의미와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외모와 진로관련 연구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외모 변수는 취업준비 및 개인의 성취동기를 위한 변수로서의 의미를 분석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진로를 결정하기까지의 다양한 선택적 행동에서 외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모관리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등에 대한 구조적 연구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외모관리가 진로결정과 진로개발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차원적 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o, H. R., & Choi, J. M. (2007).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4), 825-835.
- Engemann, K. M. & Owyang, M. T. (2005, April. 12). So Much for That Merit Raise: The Link Between Wages and Appearance. *The Regional Economist*. Retrieved June 3, 2016, from <https://research.stlouisfed.org/publications/regional/05/04/appearance.pdf>
- Gladwell, M.(2005). *Blink: The Power of Thinking Without Thinking*. New York: Little, Brown & Company.
- Hamermesh, D. S. & Biddle, J. E. (1994). Beauty and the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84*(5), 1174-1194.
- Han, J. W. (2015).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n Job-Seeking Anxie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Sciences, 24*(2). 163-185.
- Harren, V. H.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rison, D., Price, K., & Bell, M. (1998). Beyond relational demography, time and the effects of surface and deep-level diversity on work group cohes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 96-107.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64..
- Hoscodo, M., Stone-Romero, G. G., & Coats, G. (2003).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Job-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Personnel Psychology, 56*(2). 431-462,
- Im, C. -H. (2007).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Women Employees' Promotion: The Mediation Role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Korea Business Review, 36*(3). 597-621.
-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469-477.
- Kaiser, S. B. (1998).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Fairchild.
- Kim, M. [Mikyung]. (2014). The Effect of Personal Image on Self-Efficacy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1), 37-49.

- Kim, M. -J. [Mi-Ju]. (2010).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Kim, S. H. & An, J. S. (2012). Influence of Mature Stage Women'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ur on Self Esteem Through BIG 5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8(4), 874-882.
- Ko, M. N. (2011).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Inner and Outer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cision Status for College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oh, H. -J.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J. (2008). *Impact of Image Evaluation and Image Formation on Career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Lee, S. M. (1994). *Analysis on the Aspiration and Strategy for Getting a Job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S. (2007).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obius, M. M. & Rosenblat, T. S. (2006). Why Beauty Matters. *American Economic Review* 96(1), 222-235.
- Nicklin, J. M., & Roch, S. G. (2008). Biases influencing recommendation letter content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12), 3053-3074.
- Oh, C. -S., & Lee, B. -H. (2005).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Adolescent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93-113.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r Consulting and Press.
- Park, E. -J. & Chung, M. -S. (2012). Sociocultural Influences of Appearance and Body Image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5), 549-561.
- Park, H. C. (2014).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 Park, J. S. (2006). *Examining the perceived body importance model of eating behaviors: In a sample of young adults an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Roberts, L. M. (2005). Changing Faces, Professional image construction in diverse organizational setting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4), 685-711.
- Song, K. J. (2009). The effects of perceptual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10), 1611-1621.
- Super, D.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pp. 282-298.

Watkins, I. M., & Johnston, I. (2000). Screening job applicants: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lication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8*, 76-84.

Received (June 20, 2016)

Revised (August 12, 2016; August 22, 2016)

Accepted (August 24, 2016)